

# KOCHAM

##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  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10월 9일(목)

#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실업수당 청구건수 2주연속 감소
- 2) 미연준(FRB), 미국경제의 잠재적 위협 표명으로 증시 급등

#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신흥국 G7, 구매력 기준으로 G7 앞질러
- 2) 세계은행, 에볼라 경제적 피해 최대 35조원 추산

#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트위터, 미 정부 제소, “정보제공 요청사실 밝히겠다”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### 1) 실업수당 청구건수 2주연속 감소

- 지난 9일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8만7,000건으로 집계, 2주 연속 감소하면서 8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발표
  - 이는 전문가 예상치 29만5,000건을 하회하는 결과이며, 직전 주 28만8,000건보다 신청 건수도 감소
- 4주 평균 신청건수는 28만7,750건으로 집계, 200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
- 지속적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연속 수급자 수는 238만1,000명으로 집계, 2006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
- 한편, 연속 수급자 수도 블룸버그 예상치(241만명)를 하회하면서 2주 연속 감소

### 2) 미연준(FRB), 미국경제의 잠재적 위협 표명으로 증시 급등

- 지난 8일 미연준(FRB)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진들이 글로벌 경기성장 둔화와 달러화 강세가 미국 경제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중인 것으로 알려짐
  -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약할 경우 미국 경제성장도 예상보다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
- 또한, 일부 참가자들은 유로존에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와 이것이 달러화의 추가 강세를 야기, 미국의 대외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를 표명

- o 또한, 달러화 강세가 수입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낮춰 FRB의 목표치인 2% 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
- 이에 따라 FOMC는 미국의 중기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고 양적완화 종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초저금리 기조 유지에 대한 다수 지지 입장을 확인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### 1) 신흥국 G7, 구매력 기준으로 G7 앞질러

- o 지난 9일 FT는 신흥국 G7의 실질 구매력 지수(PPP) 기준으로 GDP를 합쳤을 때 37조8,000억달러로 선진국 G7의 34조5,000억달러를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
- 신흥국 G7은 브라질, 러시아, 인도 및 중국의 ‘브릭스’ 4국과 ‘민트’를 구성하는 멕시코, 인도네시아, 터키, 나이지리아를 포함
- o 시장 환율 기준으로는 중국의 GDP가 10조4,000억달러로 미국의 17조4,000억달러를 하회, 그러나 PPP<sup>1)</sup>로 환산할 경우 중국은 17조6,000억달러로 미국에 2,000억달러 앞선 세계 최대 경제국
- o 또한, 세계 20대국의 절반이 신흥국으로 인도네시아가 영국을 제치고 9위 경제국에 올랐으며, 나이지리아도 GDP 산정 기준을 바꾸며 경제력 순위가 20위로 10계단 상승한 바 있음

1) PPP는 1단위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 수량을 의미

## 2) 세계은행, 에볼라 경제적 피해 최대 35조원 추산

- 지난 8일 세계은행은 에볼라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가 35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
  - 세계은행은 기니·시에라리온·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에볼라가 진정되지 못하고 확산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연내 74억달러, 내년 말까지 32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
  - 반면 에볼라 확산이 연내에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차단되면 피해 규모는 내년 말까지 38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
-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에볼라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안길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더 많은 의사와 훈련된 의료인들, 병원 침상 경제 개발 등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
  - 또한, 100억~2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보건과 관련한 긴급상황이 발생시 즉각 사용하자고 제안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### 1) 트위터, 미 정부 제소, “정보제공 요청사실 밝히겠다”

- o 지난 7일 트위터는 미국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허용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
  - 해당 소장에는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과 제임스 코미 미 FBI 국장과 FBI가 피고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짐
  - 트위터는 소장에서 정부의 고객 정보 요청 관련 통계를 자사가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에 삭제 없이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
- o 회사 측은 지난 7월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했으나 미 정보 당국이 요청한 정보 제공 건수를 공개하지 못함
  - 정보기술(IT) 기업들은 비록 단 한 건의 요청도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밝히는 것이 안보상의 이유로 금지돼 있기 때문
- o 한편, 지난 1월에 페이스북, 마이크로소프트(MS), 링크드인, 구글, 야후는 이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보요청의 사례가 광범하게 몇 건인지를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
  - 그러나 트위터의 소송은 이보다 더 좁은 범위의 공개를 요구한 것